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조운주¹⁾ 김은영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개인 배경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차이와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8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2011년 4차년도 참여자 중 1,638명의 유아 기질, 부모양육방식,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아의 놀이방해, 놀이단절이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또래를 더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15%였다. 또래방해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사회성과 정서성이 또래방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10%였다. 또래단절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정서성과 활동성이 또래단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13%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논의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유아 기질, 부모 양육방식, 또래 상호작용

1)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또래 상호작용은 두 명 이상의 유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적인 사회적 교류를 의미한다(Acar, 2013). 유아는 걸음마기 시기에 또래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시작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Ramani, Brownell, & Campbell, 2010).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는 질서를 지키고, 돕고, 협동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배우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더 나아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정을 발달시킨다(Denham, 2007).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로 하여금 유아교육기관에 더 잘 적응하게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또래 상호작용의 실패는 공격성, 수줍음, 부정적 자기 인식, 적응의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후에 부적응과 낮은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zewczyk-Sokolowski, Bost, & Wainwright, 2005). 이처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 시기의 정서·사회 발달과 도덕적 성장뿐 아니라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다(Eivers et al., 2012. Acar, 2013. 재인용).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형제순위 등 한 개인의 배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질은 사람, 사건, 상황 등의 환경에 대한 감각 민감성, 정서, 운동, 주의집중 등의 생물학적 반응 특성과 자기 조절 능력의 개인적인 차이이다. 기질은 반응 강도, 지속성, 한계, 회복시간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충동성, 분노와 좌절, 두려움, 슬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서적 특성들을 포함한다(국립국어원, 2013; Rudasill, 2011; Rothbart, 2012; Zenter & Bater, 2008).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주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 또래작용은 여아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혜련, 엄정애, 2009; 박화운, 마지순, 천은영, 2004, 이지희, 김혜연, 2012). 형제순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형제순위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이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없다(우수경, 2009)는 관련 연구가 있다.

기질을 연구한 Thomas, Chess와 Birch(1968)는 유아의 기질 특성을 활동성 수준, 울동성, 접근과 위축, 적응성, 반응의 한계, 반응 강도, 관심 주기와 지속성, 산만함, 기분 등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아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로 범주화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자주 강한 충동, 분노, 좌절,

두려움, 슬픈 행동을 나타내고, 쉬운 기질의 유아는 반대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Karreman, de Haas, Van Tuijl, Van Aken, & Dekovic, 2010. 재인용). Rothbart(1981)는 3~12개월 영아의 기질 특성을 활동 수준, 미소와 웃음, 지속성, 부드러움, 두려움, 제한에 대한 고통으로 제시하였다. Rothbart, Ahadi, Hershey와 Fisher(2001)는 3~7세 유아의 기질을 부정적 정서, 외향·긍정 정서, 자기조절로 제시하였다. Zentner와 Bater(2008)는 기질 특성을 행동 꺼림과 두려움, 짜증과 좌절, 긍정적 정서, 활동성 수준, 주의집중과 지속성, 감각 민감성으로 제안하였다. Putnam, Gartstein, Rothbart(2006)는 1.5~3세 유아의 기질을 부정적 정서, 외향·긍정 정서, 통제 노력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Valles, 2012). 이러한 기질 특성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기질은 정서, 주의집중, 활동 수준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Berk, 2012).

이러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행동을 예언할 수 있다. 순하고 융통성이 있고, 집중하는 유아는 적응을 잘 한다. 한편,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외향적 행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여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나, 자기조절이 낮을수록 방해행동, 놀이단절, 갈등이 증가한다. 자기조절을 잘하고 수줍음이 많은 유아는 공격성과 갈등이 적고, 감정이입을 잘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 (황윤세, 2007; Acar, 2013; Degnan, Hane, Henderson, Moas, Reeb-Sutherland, Fox, 2011; Rudasill & Rimm-Kaufman, 2009; Struby, 2012).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Szewczyk-Sokolowski, et al., 2005). 즉, 기질 특성 중 부정적인 반응, 높은 활동 수준, 적은 접촉, 부족한 과업 완수는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고, 낮은 활동 수준, 많은 접촉, 높은 과업 완수는 긍정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기질 특성은 또래 뿐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유아의 과제 지향적인 기질일수록 교사와 갈등이 적었다(Oren & Jones, 2009).

기질 특성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출생 시 나타나서 아동기 중기까지 안정성을 보이며, 청소년 및 성인의 성격 특성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발달함에 따라 변화한다. 즉, 기질은 생물학에 기반을 둔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Rudasill, et al., 2009; Karreman, et al., 2010). 사회적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양육경험은 유아의 정서·사회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는 유아의 발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그 영향력은 부모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믿음은 유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Eisenberg et al., 2006. Struby, 2012. 재인용).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개입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개입과 따뜻함은 기질과 문제

행동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유능하게 돌봐주는 성인은 유아들의 융통성을 증진시키고, 심각한 행동장애의 발달 가능성을 감소시킨다(Oren & Jones, 2009). 연구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행동이나 긍정적 정서, 정서적 공감의 많을수록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많았고,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윤현숙, 2007; 이영·나유미, 1999; 정다우리, 2012; Cipriano & Stifter, 2010). 부모의 비판, 무시, 과잉 관섭이나 부정적인 통제와 같은 권위적인 양육, 따뜻함(미소, 웃음, 스킨십)의 부족은 유아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Casas, Weigel, Crick, Ostrov, Woods, Jansen Yeh, Huddleston-Casas, 2006; Karreman et al., 2010).

이상 살펴본 것처럼 유아의 기질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된 관련 연구를 보면, 외국에서는 Karreman과 동료들(2010)이 3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과 양육행동, 문제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Valles((2012)는 부모 양육과 기질의 중재에 따른 유아 공격성을 연구하였다. Struby(2012)는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또래 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David와 Murphy(2007)는 3~6세 유아의 부모와의 갈등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질의 중재역할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과 김미애(2010)가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영숙과 임지영(2012)은 3~5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실행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유아의 순한 기질은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정의적인 실행기능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지희와 김혜연(2012)은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등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관련 변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유아가 사회성이 높고 수줍음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많았고, 활동성과 수줍음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분,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김경은(2011)은 영아기 정서 및 기질,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영아기의 정서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영아기 또래 상호작용의 질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향과 이소은(2014)이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공격적 행동, 반항적 행동, 정서 불안, 위축행동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기질과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기존 연구들은 일부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보다 대다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유아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수행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자료로서 유아의 개인적 배경(성별과 형제순위)에 따라 또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인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개인적 배경(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2.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년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중 2011년 4차년도 조사 참여자이다. 4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총 1,754명 아동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응답에 참여하지 않은 116명을 제외한 1,63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남아는 835명, 여아는 803명이다.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766명(46.8%), 둘째가 687명(41.9%), 셋째 이상인 185명(11.3%)이었다. 아동의 연령은 조사일 기준으로 35개월~42개월이었고, 38개월이 27.3%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개인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개인 배경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아	835	51.0
	여아	803	49.0
월령	35개월	35	2.1
	36개월	163	10.0

(표 1 계속)

구분	사례수	비율
37개월	307	18.7
38개월	447	27.3
39개월	376	23.0
40개월	196	12.0
41개월	94	5.7
42개월	20	1.2
출생순위		
첫째	766	46.8
둘째	687	41.9
셋째 이상	185	11.3

2. 연구도구

1) 유아기질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는 유아 기질 조사도구로 Buss와 Plomin(1984)가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EAS 기질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5점 척도이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신뢰도 계수는 허미경, 이소은의 연구(2010)에서 정서성 .82, 활동성 .73, 사회성 .61이었다(부모용). 본 연구에서의 문항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50이었다.

<표 2> 기질척도 범주별 내용 및 문항수와 문항번호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역코딩)
정서성	잘 울고, 감정적이고, 쉽게 기분 나빠지고, 화를 내는지 등의 특성	5문항	2, 6, 11, 15, 19
활동성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	5문항	4, 7(역코딩), 9, 13, 17(역코딩)
사회성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	10문항	1(역코딩), 3, 5, 8, 10, 12, 14(역코딩), 16(역코딩), 18(역코딩), 20

2) 부모 양육방식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는 부모 양육방식 조사도구로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와 Pecheux(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의 세 가지 양육방식(사회적, 가르치기, 한계설정) 중 사회적 양육방식(social interaction) 9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 조사를 위해서 개발한 통제적 양육방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방식 조사도구는 총 17문항(4점 척도)으로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사회적 양육방식의 신뢰도 계수는 Bornstein(1996)의 연구에서 .68, 육아정책연구소(2007) 연구에서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방식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고, 사회적 양육방식은 .88, 통제적 양육방식은 .78이었다. 아버지 양육방식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2, 사회적 양육방식은 .88, 통제적 양육방식은 .81이었다.

<표 3> 부모양육 방식 범주별 내용 및 문항수와 문항번호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사회적 양육방식	부모의 유아와의 놀이시간, 반응, 기본 욕구 만족, 관심, 응통성, 유아 욕구인식, 사회적 경험 제공 등의 양육방식	9문항	1, 2, 3, 4, 5, 6, 7, 8, 9,
통제적 양육방식	엄격한 예절,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 부모 순종, 규칙제공, 행동 제한을 통한 가정교육, 짜증 수용하지 않음, 공중도덕 준수, 공격행동 준수 등의 엄격한 훈육 방식	8문항	10, 11, 12, 13, 14, 15, 16, 17

3) 유아 또래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도구를 사용하였다. PIPPS 도구는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의 3가지 하위범주로 문항 구성되어 있고, 30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범주와 문항 수는 <표 4>와 같다.

황윤세(2007)의 연구에서 PIPPS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계수는 놀이방해 .84, 상호작용 .82, 놀이단절 .84였다. 최인숙, 천은영(2005)의 연구에서 PIPPS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계수는 놀이방해 .79, 상호작용 .83, 놀이단절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 유아 상호작용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3이었고, 놀이방해 .73, 상호작용은 .80, 놀이단절 .81이었다.

〈표 4〉 유아 또래상호작용 범주별 내용 및 문항수와 문항번호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역코딩)
놀이 상호작용	친구와 생각 공유,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 등 긍정적 또래놀이와 관련된 행동	9문항	1, 12, 18, 20, 22, 24, 27, 29, 30
놀이방해	또래와 싸움을 하거나 불평·불만, 공격적 행동,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또래놀이와 관련된 행동	13문항	2, 4, 6(역코딩), 9, 11, 13, 14(역코딩), 15, 17, 19, 21, 25, 28
놀이단절	놀이상황에 끼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또래에게 무시당하는 등 위축되고, 회피하는 등의 또래놀이와 관련된 행동	8문항	3, 5, 7, 8, 10, 16, 23, 26

3. 분석방법

SPSS PC 18.0을 활용하여 유아의 개인적 배경(성별, 형제 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해서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에서 분산의 동질성을 위해서 Levene의 통계량 검증을 하였다. 유아의 기질 유형(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긍정적, 통제적)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는 2011년 6월 13일(조사대상 아동이 생후 만3세 이후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 11월 19일에 완료하였다.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각 가정에 송부하거나 웹을 통해서 부모가 자율적으로 완성하게 하였다.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방법

도구(내용)	주응답자	자료수집 방법
어머니 대상 질문지 (유아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또래 상호작용)	어머니	우편조사 또는 웹조사
아버지 대상 질문지 (아버지 양육 태도)	아버지	우편조사 또는 웹조사

III. 연구결과

1. 유아 개인적 배경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평균 31.71(표준편차 4.24)로 남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평균 30.35(표준편차 4.29)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40$ $p<.001$). 반면 또래 방해는 남아(평균 31.82, 표준편차 4.97)가 여아(평균 30.45, 표준편차 5.0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또래단절도 남아(평균 15.81, 표준편차 3.55)가 여아(평균 15.41, 표준편차 3.51)보다 높았다.

<표 6>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i>t</i>	자유도
또래 상호작용	남	807	30.35	4.29	-6.40***	1595
	여	787	31.71	4.24		
또래 방해	남	811	31.82	4.97	5.509***	1598
	여	786	30.45	5.03		
또래 단절	남	815	15.81	3.55	2.23*	1592
	여	785	15.41	3.51		

*** $p<.001$, ** $p<.01$

유아의 형제순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형제순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은 첫째(평균 31.1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둘째, 셋째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방해는 둘째(31.6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셋째, 첫째 순이었다. 또래단절은 첫째(15.7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셋째, 둘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형제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기술통계

구분	형제 순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또래 상호작용	1(a)	751	31.15	4.41
	2(b)	667	30.93	4.18
	3(c)	176	30.81	4.45
	전체	1594	31.02	4.32
또래 방해	1(a)	751	30.61	5.24
	2(b)	669	31.68	4.78

(표 7 계속)

구분	형제 순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또래 단절	3(c)	177	31.38	4.95
	전체	1597	31.15	5.04
	1(a)	751	15.76	3.61
	2(b)	672	15.48	3.40
	3(c)	177	15.54	3.74
	전체	1600	15.62	3.54

유아의 형제순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분산분석을 위한 분산의 동질성(Levene의 통계량 검증)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53, .160, .181로 등분산이 입증되었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또래 상호작용이나 또래 단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또래 방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8.22, p <.01$). 사후검증(Scheff') 결과, 첫째보다 둘째가 유의미하게 또래를 더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형제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분산분석

구분	변산원 (형제순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증)
또래 상호작용	집단-간	25.45	2	12.72	.68
	집단내	29695.83	1591	18.67	
	전체	29721.28	1593		
또래 방해	집단-간	414.63	2	207.32	8.22** (b>a)
	집단내	40201.66	1594	25.22	
	전체	40616.30	1596		
또래 단절	집단-간	28.32	2	14.16	1.13
	집단내	19964.52	1597	12.50	
	전체	19992.84	1599		

** $p <.01$

2.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F값이 66.82($p <.001$)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상호작용을 15% 설명하였

다. 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은 12%이고, 여기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첨가되므로 설명력이 2%로 증가하였고, 유아 기질의 정서성이 추가되면서 1%,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추가되면서 0.4%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9〉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행동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i>B</i>	β	<i>t</i>	<i>R</i> ²	<i>R</i> ² 변화량	<i>F</i>
	(상수)	12.20					
또래 상호 작용	모의 사회적 양육	.29	.30	11.90***	.15	.12	66.82***
	모의 통제적 양육	.16	.14	5.70***		.02	
	유아기질의 정서성	.17	.08	3.42***		.01	
	부의 사회적 양육	.06	.06	2.55*		.004	

*** $p < .001$, * $p < .05$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이 또래 방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F값이 44.57($p < .001$)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사회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이 또래 방해를 10% 설명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은 7%였고, 여기에 유아기질의 사회성이 추가되므로 설명력이 3% 증가하였고,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추가되므로 1%, 유아기질의 정서성이 추가되면서 0.4%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또래 방해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사회성과 정서성은 또래 방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유아 기질 및 부모양육태도가 또래방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i>B</i>	β	<i>t</i>	<i>R</i> ²	<i>R</i> ² 변화량	<i>F</i>
	(상수)	29.53					
또래 방해	모의 사회적 양육	-.27	-.24	-9.50***	.10	.07	44.57***
	유아기질의 사회성	.32	.15	5.86***		.03	
	부의 사회적 양육	-.08	-.07	-2.82**		.01	
	유아기질의 정서성	.17	.07	2.73**		.004	

*** $p < .001$, ** $p < .01$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이 또래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F값이 59.97($p<.001$)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유아기질의 활동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 단절을 13.% 설명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의 설명력은 9%이고, 여기에 유아기질의 정서성이 추가되므로 설명력이 2% 증가하였고, 유아기질의 활동성이 첨가되므로 2%,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추가되므로 0.2%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또래 단절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정서성, 활동성은 또래 단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또래단절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i>B</i>	β	<i>t</i>	<i>R</i> ²	<i>R</i> ² 변화량	<i>F</i>
	(상수)	16.66					
또래 단절	모의 사회적 양육	-.23	-.29	-11.71***	.13	.09	59.97***
	유아기질의 정서성	.29	.16	6.85***		.02	
	유아기질의 활동성	.24	.13	5.33***		.02	
	부의 사회적 양육	-.04	-.05	-2.02'		.002	

*** $p<.001$, * $p<.05$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표집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인적 배경 중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은 여아가 높았고, 또래 방해와 단절은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지희와 김혜연(2012)의 연구, 문혜련과 엄정애(2009)의 연구,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나 놀이방해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김효정, 성소영, 2011; 손유진, 이연선, 2006; 이재연, 이완정, 2006)에서

놀이 활동 시, 여아들은 주로 협력과 배려 전략을 사용하고, 남아보다 또래에 대한 신뢰감과 의사소통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언어발달과 심리적 성숙이 빠른 반면, 남아의 경우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비언어적 적대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지희, 김혜연, 2012)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형제순위에 따른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또래 상호작용과 또래 단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또래 방해만 첫째보다 둘째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수경(2009) 연구에서 형제순위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이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일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형제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또래 유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기현주, 김희진, 2004)에 근거할 때, 형제의 순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형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래와의 경험이 또래관계 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owes, Rubin, Ross, & French, 1988)에 근거할 때 형제 순위보다 또래와의 놀이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의 설명력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이 1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 공감, 온정·격려 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들의 상호적 또래놀이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윤현숙, 2007; 이진화, 2009; 정다우리, 2012; Cipriano & Stifter, 2010)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도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을 덜 나타냈다는 선행연구(정옥분 외, 2011)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유아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 방해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부적 영향을 미쳤고, 유아 기질 중 사회성과 정서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의 설명력 중 또래 방해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의 설명력은 7%이고, 유아 기질 중 사회성의 설명력은 3%로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를 지지하며, 어머니가 한계설정 행동을 많이 할수록 놀이 방해 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이진화, 2009)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보다는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방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 기질의 사회성이 또래 방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성 기질이 낮은 영아가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는 하지영과 서소정(2012)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높은 활동 수준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Oren과 Jones(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사회성 기질을 가진 유아가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하며 그만큼 또래와의 접촉 횟수가 많고, 이러한 결과로 또래방해 행동도 함께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 기질의 정서성이 또래 방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지희, 김혜연, 2012)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적 반응표현이 격렬하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지니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또래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조영아, 김수영, 2009).

또래 단절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아 기질의 정서성, 활동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의 설명력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의 설명력은 9%이고, 유아 기질의 정서성의 설명력이 2%로 두 가지 요인이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사회적 양육방식을 보일수록 또래 단절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 기질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또래 단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지희, 김혜연, 2012) 결과와 일치한다. Szewczyk-Sokolowski 등(2005)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이 또래 거부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정서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은 사회적 두려움으로 인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정옥분 외, 2011). 한편, 유아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또래 단절이 많이 나타나는 결과는 활동성이 높고 외향적인 기질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사회적 문제행동인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이지희와 김혜연, 2012)와 일관성이 있다. 이는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외향

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자기조절이 낮아서 방해행동, 놀이단절,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황운세, 2007; Acar, 2013; Degnan, et al, 201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기질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기질은 다소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Szewczyk-Sokolowski, et al., 2005),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조절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조절과 따뜻함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 Pluess와 Belsky(2009)의 연구에 의하면 민감한 기질인 경우, 민감하지 않은 기질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사회적 역량이나 문제행동 감소에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환경요인으로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고, 질적 유아교육기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유아의 성, 형제순위, 기질에 따라 놀이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놀이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호작용적 및 또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발달과 유아기 이후의 원만한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진화, 2009), 기질은 그 자체로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하지영, 서소정, 2012), 이를 감안하여 유아의 특성에 따른 놀이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방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비롯한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 행동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고(R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 & Debnam, 1995, 박화운 외, 2004, 재인용),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Szewczyk-Sokolowski, et al., 2005). 따라서 사회적 기질이 낮은 유아들의 놀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적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조사도구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특성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별 특성,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 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의 기질 특성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영숙·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5.
-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기현주·김희진(2004). 어머니의 형제대우, 형제 상호작용, 그리고 또래 유능성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4), 5-32.
- 김향·이소은(2014).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8(1), 123-146.
- 김효정·성소영(2011). 유아의 인기유형과 성별에 따른 리더십과 놀이성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157-182.
- 문혜련·엄정애(2009). 만 5세 남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간 관계. 교육과학연구, 40(2), 159-181.
- 박지영·강성단·권경숙(2010). 유아의 기질, 또래 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박화운·마지순·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9), 285-298.
- 손유진·이연선(2006). 자유놀이에서의 남아와 여아의 담화전략 및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69-290.

- 우수경(2009). 형제수, 형제 성구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 능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367-388.
- 윤현숙(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다중지능 그리고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1(4), 389-405.
- 이영·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재연·이완정(2006).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 구성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29-146.
- 이지희·김혜연(2012). 유아기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 이진화(2009). 어머니의 놀이긴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327-344.
- 정다우리(2012). 어머니 역할행동 및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79-97.
- 정옥분·박성연·윤종희·도현심·김경은(2011).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인간발달연구*, 18(1), 151-168.
- 조영아·김수영(2009). 영아의 기질 요인에 따른 영아-교사 간 애착 안정성 및 또래 간 상호작용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07-229.
- 최인숙·천은영(2005). 유아의 성격 유형에 따른 놀이 형태와 상호작용적 또래 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169-186.
- 최지영·김미애(2010). 유아기질과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19-137.
- 하지영·서소정(2012).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41-166.
- 허미경·이소은(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 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 황윤세(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 _____ (2012). Advances in temperament: History, concepts, and measures. In M. Zentner & R. L. Shiner(Eds.), *Handbook of temperament*. (pp. 3-20). NY: Guilford Press.
- Acar, I. H. (2013).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peer interactions: Temperament and prosocial behavior.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 Berk, L. E. (2012). *Child development*.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Jansen Yeh, E. A.,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 - 227.
- Cipriano, E. A., & Stifter, C. A. (2010). Predicting preschool effortful control from todd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 221 - 230.
- David, K. M., & Murphy, B. C. (2007). Interparen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peer relations: The moderating roles of temperament and gender. *Social Development*, 16(1), 1-23.
- Degnan, K. A., Hane, A. A., Henderson, H. A., Moas, O. L., Reeb-Sutherland, B. C., & Fox, N. A. (2011). Longitudinal stability of temperamental exuberance and social-emotional outcome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765-780
- Denham, S. A. (2007). Dealing with feelings : How children negotiate the worlds of emotions and social relationships. *Cognition, Brain, Behavior*, 11(1), 1-48.
- Howes, C., Rubin, K. H., Ross, H. S., & French, D.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1), 1-99.
- Karreman, A., de Haas, S., Van Tuijl, C., Van Aken, M. A. G., & Dekovic, M. (2010). Relation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 in young childre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 39-49.
- Oren, M., & Jones, I.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 tempera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2(4), 122-132.
- Pluess, M., & Belsky, J. (2009).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The Case of Child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4), 396-404.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9, 386 - 401.
- Ramani, G. B., Brownell, C. A., & Campbell, S. B. (2010).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in 3-and 4-year-olds in relation to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1(3), 218-250.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3-7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Rudasill, K. M. (2011). Child temperament,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from first to third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 147-156.
- Rudasill, K. M., & Rimm-Kaufman, S. E. (2009).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The roles of child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2), 107-120.
- Struby, J. D. (2012). Preschoolers, parents, and peers: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predictors of peer play. Master Degree Dissertation,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 Szewczyk-Sokolowski, M., Bost, K. K., & Wainwright, A. B. (2005). Attachment, temperament,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Social Development*, 14(3), 379 - 397.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ERIC Number ED025066)
- Valles, N. (2012).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temperament in the relation between harsh and deficient parenting and child aggressive behaviors. Th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 Zentner, M., & Bates, J. E. (2008). Child temperament: An investigative review of concepts, research programs an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1(1), 7-37.

·논문접수 10월 23일 / 수정본 접수 11월 28일 / 게재 승인 12월 22일

·교신저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메일 keycandy@kicce.re.kr

Abstract

Predicting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from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Woonju cho, Eunyoung Ki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ccording to individual backgrounds; and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Data of temperaments, parenting styles, and peer interaction from the total of 1,754 young children among participants of 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as re-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in terms of the factors of individual background, girls showed relatively higher peer interaction scores than boys, and boys displayed higher scores in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In terms of birth order, it appeared that second child more disrupts peers than first child does. Second, as to the effect of temperaments and parenting styles on peer interaction; social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emotionality of temperament, and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fath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peer interaction and their effect size was 15%.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and father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er disruption. Sociability and emotionality of tempera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peer disruption and their effect size were 10%. With respect to peer disconnection, i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and father, and positively with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and activity with both effect sizes of 30%. With the results given,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young children temperament, parenting style, peer interaction